https://youtu.be/jxd3ZYI_Lr4

반갑습니다. 자랑스러운 노동당 제 11기 당대표 나도원,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. 투쟁!

취임 첫날 마석에 있는 민주열사 노동열사 묘역에 찾아왔습니다. 하얀 눈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. 동지들과 함께 하는 이 길을 축복하기 위해 선열들께서 보내주 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요즘 한국의 많은 인민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. 주거 의료 교육, 다 고통스럽습니다. 특히 노동자들의 삶은 수십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생태위기는 또 어떻습니까. 전 지구, 인류가 모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.

이것은 정권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. 노동자의 피를 기름 삼아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. 인민들의 뼈를 장작 삼아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문 제인 것입니다.

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하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. 보수양당체제, 엎어야 합니다. 정체성을 잃어버린 진보정치 혁신해야 합니다.

노동당 비록 그간 어려움도 있었고 부침도 있었지만, 지난 2년 동안 잘 추스려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. 사회주의 좌파진영과 함께 손을 잡고 좀 더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.

당원동지 여러분! 우리는 내년에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.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,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힘을 모이 왔습니다. 내년에 이 첫 매듭을 통해 한국의 사회주의 좌파가 힘을 모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. 동지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.

그리고 한국사회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판가름 낼 수 있는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우리 사회주의 좌파진영 동지들이 한데 힘을 모아 대선과 지선을 잘 돌파한다면 한국사회에 작은 희망과 작은 불씨를 다시 지필 수가 있습니다.

재정립한 노동당, 사회주의 좌파진영과 힘을 모아 가는 노동당, 이제 제대로 된 정치활동, 폭 넓은 사회운동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현장투쟁을 함께 해 나아가 야 할 것입니다.

노동당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평생을 헌신해온 훌륭한 좌파 노동운동가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. 체제를 전환하려면 세대도 전환해야 하고 인식도 전환해야 됩니다. 다같이 큰 마음, 넓은 마음을 갖고 동지애로 힘을 모아갑시다. 노동당이 동지가 될 터이니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힘차게 나아가서 사회주의 세상을 우리 한국 사회에 보여줍시다.

대한민국 인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. 보시기에 아직 약하고 미흡해 보여도 저희는 긴 시간 동안 투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십년 선배들의 뜻을 이어 받아 한국 사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.

이 시대에 맞는 21세기형 사회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인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연구하고 만들어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때,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한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, 제대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정치혁명, 같이 이뤄봅시다. 경제혁명, 같이 이뤄봅시다. 다음 세대 그리고 지구생태계의 많은 생명들은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, 생존을 염려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.

부족하지만 자랑스러운 노동당 제11기 대표 나도원, 동지들과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인민들께 약속드립니다. 제 임기 동안 한발짝 더 나아가는 노동당이 되고, 더 강한 사회주의 세력이 되고, 더 희망이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고맙습니다. 투쟁!